

국내 과학경진대회의 새바람,



올해부터 개최된 제1회 국제청소년 과학창의대전(KISEF 2010,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이 국내 과학경진대회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며 주목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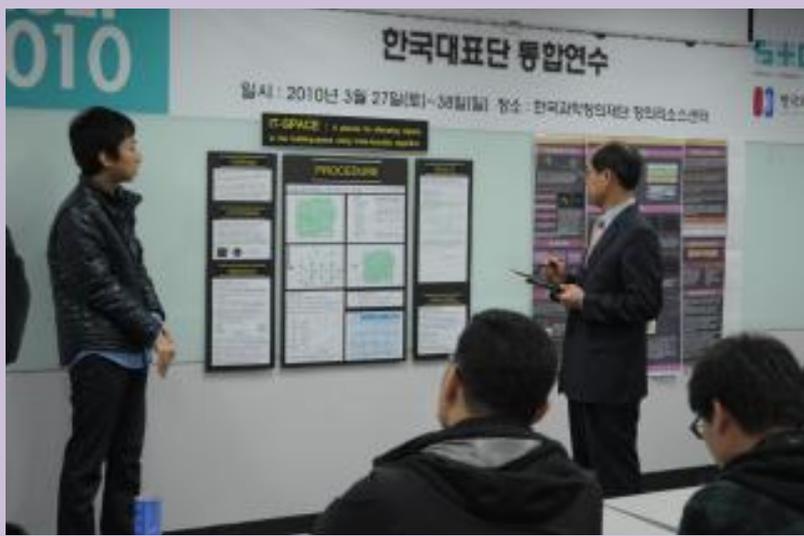
3차에 걸쳐 진행되는 KISEF 캠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 통해 KISEF 에 대한 기대를 들어보았다.

"과학이 공부해 볼만한 학문이라는 마음을 먹게 해 주는 대회가 필요하다"

이희권 충남과학고등학교 교사는 "인텔 ISEF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 만으로도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학생들을 보며 국내에도 그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KISEF는 국내 경진대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 ISEF는 Invitation Day를 지정해 유치원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일반인 관람은 어려울 때부터 인텔 ISEF에 참가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하는 동시에, 참가 학생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오창호 만리포중학교 교장은 "학생 중심의 심사와 작품 수만큼 많은 심사위원은 인텔 ISEF의 주요 특징"이라며, "이제 시작하는 KISEF가 인텔 ISEF만큼 다양한 심사위원을 확보하긴 아직 어려운 실정이지만 학생 중심의 심사를 전격 도입한 만큼 진정한 학생 중심, 창의력 중심의 대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또한 "참가학생 모두가 Finalist인 인텔 ISEF는 경쟁보다는 과학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며, "국내 대회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